

올해 마지막 A매치, '5연승' 마침표 찍자



지난 14일 (현지시간) 열린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 손흥민이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한 뒤 이재성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내일 오후 11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예선 B조 6차전

지난 9월 맞대결 아쉬움 털고 화끈한 승리로 연승 다짐 '캡틴' 손흥민 51호골·원톱 오세훈 3경기 연속골 도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흥명 보호가 올해 A매치 마지막 상대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A매치 5연승 행진'에 도전한다.

흥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 19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의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6차전을 펼친다.

지난 14일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3차 예선 5차전 원정에서 3-1 대승을 따낸 대표팀은 올해 A매치 최종전인 팔레스타인을 맞아 A매치 5연승과 더불어 '중동 원정 2연전 싹쓸이'를 노린다.

한국은 팔레스타인과 지난 9월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 1차전에서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0-0으로 아쉽게 비겼다.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면서 프로 리그도 중단되고, 대표팀 선수 선발도 쉽지 않은 상태인 팔레스타인

과 비겼다는 것만으로도 태극전사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충분했다.

특히 흥명보 감독은 지난 7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 치른 경기부터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대표팀은 이후 치러진 월드컵 3차 예선 2-5차전에서 내리 4연승을 거두면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B조에서 승점 13(4승 1무)으로 2위 요르단과 3위 이라크(이상 승점 8)와의 격차를 승점 5차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약 두 달 만에 팔레스타인과 다시 만나는 흥명보호는 최근 상승세를 앞세워 승리만 바라보고 있다.

흥명보호는 이번 팔레스타인전은 힘든 중동 원정 2연전의 마지막 경기이자 올해 A매치 일정의 마침표를 찍는 무대인 만큼 화끈한 승리로 A매치 5연승의 신바람을 이어가겠다는 의

지를 다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0위로 한국(22위)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진다는 평가다.

다만 원정으로 치러지는 만큼 한국은 지난 14일 쿠웨이트전처럼 빠른 득점을 앞세워 일찌감치 기선제압에 나선 뒤 소나기 골로 상대를 무력화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전에서 다양한 기록도 세울 수 있다.

앞서 쿠웨이트와 5차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개인 통산 50호골을 터트리며 황선홍 대전하나 시티즌 감독과 '역대 남자 A매치 최다골' 공동 2위에 오른 손흥민은 특유의 몰아치기 능력을 앞세워 단독 2위로 올라설 태세다.

더불어 손흥민의 후계자로 성장한 왼쪽 날개 배준호(스토크시티)는 A매치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노린다.

배준호는 요르단, 이라크와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서 연속 도움을 기록하더니 쿠웨이트와 5차전에서 쐐기골을 뚫으며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쌓은 바 있다.

또 원톱 스트라이커 주전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은 이라크전과 쿠웨이트전 득점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일 열린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신유빈-전지희가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황금 콤비' 신유빈·전지희 WTT 왕중왕전 우승 호기

여자복식 세계 1위조 불참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합작한 여자탁구의 '황금 콤비' 신유빈(대한항공)과 전지희(미래에셋증권)가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왕중왕전에서 우승 기회를 잡았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체육관에서 열리는 'WTT 파이널스 후쿠오카 2024'에 올해 파리 올림픽 때 남녀 단식 금메달을 차지했던 중국의 관전둥(세계 3위)과 천멍(세계 4위)이 나란히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관전둥과 천멍은 파리 올림픽 단식과 단체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2관왕으로 중국의 전 종목 석권을 이끌었다.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파리 대회까지 제패하며 올림픽 여자 단식 2연패 위업을 이뤘던 천멍은 파리 올림픽 이후 ITTF 주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천멍의 불참으로 여자복식 세계랭킹 1위 콤비인 천멍-왕만위(세계 2위) 조의 구성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세계랭킹 2위 듀오인 신유빈-전지희 조가 여자복식 톱시드를 받는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중국과의 파리 올림픽 여자단체전 준결승에서 천멍-왕만위 조에 1-3으로 패하는 등 상대 전적 3전 전패의 열세였다.

한편 이번 WTT 파이널스 후쿠오카는 랭킹 포인트가 높은 선수들만 초청해 우승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으로 남녀 단식에 16명, 남녀 복식에 8개 조만 초청됐다.

신유빈(세계 11위)과 전지희(세계 16위)는 이 대회 여자단식에도 참가한다. 한국 남자 선수로는 장우진(세계 15위·세아)이 유일하게 단식에 출전한 다. /연합뉴스

김민선, KLPGA 이벤트 대회 우승

연장서 김수지 제압

김민선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이벤트 대회인 위믹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김민선은 17일 부산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위믹스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2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8타를 쳤다.

김수지와 동률을 이룬 김민선은 18번 홀(파5)에서 치른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김수지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상금은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로 지급되며 우승 상금은 3억4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20만 위믹스다. /연합뉴스

열렸고, 이날 2라운드는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됐다.

16일 매치플레이에서 이긴 선수들이 파이널 A, 패한 선수들은 파이널 B에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쟁했다.

1라운드 매치플레이에서 윤이나를 3홀 차로 물리친 김민선은 2003년생으로 지난해 KLPGA 투어 신인이었다.

아직 정규 투어 우승은 없지만 최근 2년 연속 준우승을 한 번씩 차지한 바 있다.

"일본전은 많은 숙제 남겨...좋은 경험 쌓는 중"

한국 야구대표팀 간판 김도영 도미니카전 가벼운 부상 교체 '호주전 출전은 관찮을 것 같아'



지난 14일 대만 타이베이 텐우야구장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B조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쿠바의 경기. 2회말 2사 만루에서 홈런을 친 김도영이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전과 도미니카공화국전에서 잠잠했어도, 여전히 한국 야구대표팀 간판타자는 김도영(21·KIA 타이거즈)이다.

김도영은 지난 16일 도미니카공화국과의 B조 조별리그 4차전에서 6회초 수비 도중 교체됐다.

0-6에서 부상 때문에 그라운드를 떠난 김도영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만, 다행히 한국은 9-6으로 경기를 뒤집고 짜릿한 승리를 수확했다.

경기 후 만난 김도영은 "얼음찜질하며 경기를 봤다. 교체되고 바로 점수가 나와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내가 빠져서 점수가 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응원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도영은 "골반은 시즌 중에도 이 정도 피로감을 느끼긴 했다. 하체에 피로도가 있는 느낌이다. 호주전 출전은 관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영은 대만과 조별리그 첫판에서 1타점 2루타를 책임지는 등 3타수 1안타로 활약했고, 쿠바와 2차전은 만루홈런을 포함해 홈런 2개를 터트렸다.

그러나 일본전에서 그는 4타수 무안타에 삼진 2개를 당했고, 한국은 3-6으로 패했다.

이날 도미니카공화국전 역시 교체되기 전까지 2타

수 무안타로 잠잠했다.

김도영은 "오히려 감이 너무 좋다고 느껴서 일본전은 성급하게 치려고 했다. 볼을 계속 건드려서 카운트에 몰린 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전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숙제도 받았다. 야구 인생에서 좋은 계기가 되는 경기

가 된 듯하다. 좋은 경험 했다"고 돌아봤다.

김도영은 남은 호주전에서 태극마크가 부끄럽지 않은 경기기를 약속했다.

그는 "승리로 보답하고 싶다. 결과와 상관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

'단기필마' 신진서마저 탈락

딩하오에 불계패...삼성화재배 월드바둑 4강 중국 독차지

한국 바둑의 마지막 보루였던 신진서 9단마저 무너졌다.

신진서는 17일 경기도 고양시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2024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8강 둘째 날 대국에서 중국의 강호 덩하오 9단에 18수 만에 불계패를 당했다.

2022년 삼성화재배 우승자인 신진서는 지난해 챔피언인 덩하오와 중반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그러나 중앙 전투에서 수읽기 착각으로 대가가 잡히면서 바둑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신진서는 덩하오를 상대로 최근 5연승을 달렸다 일격을 당했다.

하지만 상대 전적은 9승 4패로 여전히 앞서 있다.

한국 기사 중 유일하게 8강에 올랐



신진서(왼쪽) 9단이 삼성화재배 8강에서 덩하오 9단에 패했다. <한국기원 제공>

던 신진서가 탈락하면서 올 삼성화재배 4강은 전원 중국 기사들이 차지했다.

18일 열리는 4강에서는 덩하오가 진위칭 8단과 맞붙고 19일 4강에서는 당이페이 9단과 렌샤오 9단이 대결한다.

삼성화재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